특별기고

삼일절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자

정 기 연
주필

올해 3월 1일은 3·1절 104주년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 일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며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국기 게양을 하게 돼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자랑스러운 국경일에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며 지난 역사를 음미하고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종갓집 구청인 동구청 (구청장 임택)은 삼일절을 앞두고 전 구민의 국기게양 홍보에 나섰다. 관내 13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각 통장이 국기 게양을 홍보하고 국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국기를 갖추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국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 통·반별로 100% 국기 게양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해마다 국경일 국기게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삼일절 국기게양 홍보를 구청처럼 하고 있어, 국기 갖추기와 국기 게양추진에 있어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돋보이고 있다. 관내 금융기관인 서석새마을금고(이사장 정병호)는 가정용 국기 400개를 동구청에 희사해 국기가 없는 가정에 보급하도록 해 이번 삼일절 국기게양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가정용 국기 100개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삼일절 국기게양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의 다민족이 모여 이루어진 국민이며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가정마다 빠짐없이 게양하고 있다. 미국은 다민족 50개 주가 모여 이루어진 합중국이지만, 성조기인 국기 앞에서는 애국심을 다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학교에서 교육했고 지자체에서도 그때마다 홍보하지만, 지난해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이러고도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부끄러움이 들게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경일에 누구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게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으며 각 아파트에는 관리 사무소가 있고 시골 마을에 마을 안내 방송이 있듯이 아파트마다 관리 사무소에서 집집이 연락되는 방송망이 있으며 아파트군집의 인구는 시골의 면 또는 군 인구만큼 많은 아파트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화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치와 자율을 자랑하고 있다. 국경일에 100% 국기게양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주민자치를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아파트에 100% 게양된 태극기 물결은 우리의 자랑이며 민주국가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선진국 주민자치 자랑이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 국기게양을 통해 아파트마다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자체에서 하는 데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으며 경제적 생활 수준도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국경일이 공휴일인데 어째서 공휴일인 가의 국경일 공휴일에 대한 사전교육과 국경일 국기 게양 홍보 교육이 있어야 하며 삼일절 당일에는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자녀와 같이 게양해야 한다.

3·1운동은 일제 강점 시대에 가장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모든 계층이 참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전국적이었다. 또한, 조선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달게 받는다고 한 일제의 선전이 허위였음을 일시에 폭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3·1운동은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세워져 항일독립운동을 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침략자이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억압했던 만행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지금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침략 만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삼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억압을 받았고 후진 국가였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노력과 애국심은 일본에 앞서 세계 6위의 강대국 선진국이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한국) 우리는 민주국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국경일인 삼일절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며 1등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부르자.

올해 104주년 3·1 절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의 3·1운동 정신을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국가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기고

치매 부모님을 보면서

국 중 균
광주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가장 존귀하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닌가 싶다.

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기력이 없어지면서 늙어가는 현실에 실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월을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 가 체념한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에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부모님은 그런 생각조차 애써 품어 주며 자식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넘는 약 89만 명이 치매를 앓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으로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추정된다는 통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령인구가 치매를 안고 생활하는지 알 수 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의미한다고 한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60~80%를 차지한다. 치매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는 혈관성,루이소체형,전측두엽성치매,파킨슨병등이 있다.

필자의 부모님도 치매를 안고 생활한지가 벌써5년이 넘어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항상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고 늙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하루가 몸에 살이 빠져 수척해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갈수록 더 기억력 기능이 상실해 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내 자신은 부모님께 지금까지 잘 해드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상념에 잠긴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잘되길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저 역시 자식을 볼 때면 자식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소원하고 기도한다.

잘났던 못났던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실 때 안부전화를 한다거나 시간을 할애해 직접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부모님 건강할 때 자주 찾아뵙고 안부 전화하며 늙고 병 들 때는 가족 모두가 서로 떠넘기지 말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노후에 편안하게 모실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 장 황일봉
사 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이가영
부 사 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